<일민가>의 창작 배경과 의식 지향
-『지암일기』 내용을 바탕으로

배대웅*

차 례

1. 서론
2. <일민가>의 창작 배경과 <환산별곡>
3. <일민가>에 나타난 윤이후의 의식 지향
4. 결론

| 국문초록 |

본고는 현전하는 지암 윤이후(支菴 尹爾厚, 1636-1699)의 일기『지암일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안에 수록된 가사 작품 <일민가>를 상고(詳考)한 것이다. <일민가>에 대한 연구는 17세기 강호가사라는 거시적 관점을 바탕으로 <일민가>를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작가 윤이후의 일생이 드러난『지암일기』를 바탕으로 살펴보기도 하였으나 <일민가> 일부분에만 주목하여 보았을 뿐, 전체적인 내용과『지암일기』의 관계에 대한 해명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리하여 본고는『지암일기』의 내용과 <일민가>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일민가>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는지 상고하고자 하였다.

우선 <일민가>는 윤이후의 외숙 이락의 <환산별곡>의 영향을 받아 창작되었다. <환산별곡>은 도잠의 <귀거래사>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것으로 자신의 강호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작품이었다. 물론 <환산별곡> 전문이 현전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일민가>는 <환산별곡>의 형식이나 주제적 특징이 그대로 전달되고 그것이 확대,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민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전반부에서는 옥천에서의 삶을, 후반부에서는 죽도에서의 삶을, 결말부에서는 임금에 대한 축수를 노래하고 있다. 하지만 그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www.kci.go.kr

부분들마다 화자의 감정에 편차가 보이는데, 이것은 윤이후 말년의 삶이 <일민가>에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윤이후는 말년에 나름의 정치적 고난을 겪었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 속에는 자신이 겪은 고초에 대한 억울함이 남았으며, 비록 향촌 사족으로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만족감은 충분히 느끼고는 있지만 결국은 멀리서나마 임금에 대한 축수(祝壽)를 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어조로 묶어내기는 어려우나 『지암일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윤이후가 왜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민가>는 강호가사의 일면도 보여주면서 동시에 말년의 자신의 삶을 그대로 녹이며 보여주고 있는 자술성이 강한, 자술적 서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윤이후, 『지암일기』, <일민가>, 강호가사, 자술성

1. 서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해남이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땅끝'을 떠올릴 것이다. 그렇다면 해남이라는 단어에 문학을 함께 연관지어 생각해보자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아마 가장 먼저 고산 윤선도(孤山 尹善道, 1587-1671)를 떠올리지 않을까 한다. 본고에서 굳이 윤선도의 시가는 몇 수가 전해지며, 각각이 갖는 시가사적 위상, 문학사적 위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나 윤선도라는 인물의 역사적 위상 등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윤선도라는 인물, 그리고 윤선도의 시가가 갖는 여러 위상에 대한 작은 언급이나 관련 연구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이렇듯 해남을 대표하는 윤선도라는 인물, 그리고 그의 문학작품들은 우리 역사에 족적을 크게 남겼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물인 지암 윤이후(支菴 尹爾厚, 1636-1699)는 그런 윤선도의 손자로, 부모를 일찍 여의고 윤선도 슬하에서 자란 인물이다. 늦

www.kci.go.kr

은 나이에 생원시와 증광시에 급제하여 여러 직책을 역임하였으며 1691년 함평 현감직을 마지막으로 정계 생활을 마무리 하고 1692년부터 고향인 해남에 거주하다 1699년 생을 마감한다. 현재 남아있는 윤이후의 개인 문집은 없으나 특이하게도 그의 일기인 『지암일기(支菴日記)』는 전해지고 있다. 『지암일기』는 윤이후가 1692년 1월 1일부터 1699년 9월 9일까지, 정치 생활을 마무리하고 해남에 살면서부터 타개하기 직전까지의 일상을 기록한 것으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쓴 일기이다. 그리고 이 일기에는 <일민가>라는 가사 작품도 전해지고 있다.

<일민가>는 『지암일기』 1698년 6월 26일 일기에 '일민가 62구'라는 제목 아래에 적혀 있으며, 그 끝에는 시조 1수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일민가>에 대한 연구는 구수영에 의해 가장 먼저 이뤄졌으며[1], 이후 안혜진, 박연호가 각각 강호가사의 변모과정을 연구하면서[2] 17세기 강호가사의 추이에 대해 연구하면서[3] 논자들의 논조에 힘을 싣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일민가>가 인용되었다. 이후 개별적인 작품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김명준, 조연숙, 양희찬, 박영민의 연구가 그것이다. 김명준은 <일민가>는 "도덕적 근본주의의 퇴색, 즉물적 자연인식 그리고 자긍의식의 소멸 등이 나타나며" 이것이 곧 17세기 중반 이후의 흐름과 같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작품 속에서 관료의 재출사 의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 향반들의 가사 작품과는 변별된다고 이야기하며, <월선헌십육경가>와 함께 그들만의 항로를 가졌던 작품으로 판단하고 있다.[4] 조연숙은 <일민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작품 외적인 면에 치중된 면이 있었다며, 작자는 강호의 일민을 자처하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지만 일민은

1) 구수영, 「윤이후의 '일민가' 연구」, 『동악어문논집』 7, 동악어문학회, 1971.
2) 안혜진, 「강호가사의 변모 과정 연구 - 누정계와 초당계 가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3) 박연호, 「장르론적 측면에서 본 17세기 강호가사의 추이」, 『어문논집』 45, 민족어문학회, 2002.
4) 김명준, 「<일민가>의 의식 지향과 시가사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18, 한국시가학회, 2005.

www.kci.go.kr

곧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무의식적 자아는 관인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작가가 <일민가>에서 하늘·산·달이 있는 공간에 대한 지향을 통해 자신의 공간에 재생의 의미를 부여하며 북궐과 축성수라는 원망(願望)의 실체를 구현내고 있다고 하였다.[5] 양희찬은 <일민가>의 내용 짜기에서 내적 짜기 방법을 살피고, 그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외적 짜임틀을 기승전결의 결구 방법으로 설명하였다며 이 작품의 특징을 형상화의 이중주화기법(二重奏化技法)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기법은 흔히 보기 어려운 개성적인 기법이라고 평가하였다.[6] 박영민은 <일민가>를 작가 자신이 겪은 정치적 풍파를 기록에 남겨 일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드러내고 이로 인해 생긴 상처를 일민이 되어 치유하는 것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하였으며 일민으로서 혼탁한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도 사회와의 합일을 포기할 수 없는 사대부로서의 이상을 간직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자전적으로 술회한 작품이라고 말한다. 또한 18세기 이후 활발하게 창작된 초당계 가사의 전범이 된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7]

지금까지 연구된 것을 종합해본다면 <일민가>는 자연에서의 삶을 보여주며 강호가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작가 윤이후의 현실인식도 담겨져 있으며 그것들이 이후 가사문학사와 나름의 연결점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런 앞선 연구 결과에 필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시가사적 문제와 관련된 거시적 관점의 것만은 아니다. <일민가>가 『지암일기』에 수록된 작품이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여 <일만가>의 내용을 살펴보며 그것을 통해 윤이후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민가>는 『지암일기』 1698년 6월 24일자 일기에 수록되어 있으며 작품 곳곳에 작가가 직접 작품 내용 속에 필요한

5) 조연숙, 「<일민가> 연구 - 작가의식과 공간의식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22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6) 양희찬, 「<일민가>의 내적 짜기방법」, 『어문연구』 64, 어문연구학회, 2010.
7) 박영민, 「『지암일기』를 통해 본 <일민가>의 창작 배경과 주제 의식」, 『한국고전연구』 4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www.kci.go.kr

내용을 부기한 부분이 있다. 대개 작품의 내용이나 비유 등에 대한 설명을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은 여타 가사 작품들과 변별되는 부분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부기들의 내용을 『지암일기』 내의 다른 일기 내용들과 함께 살펴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상기하며 <일민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민가>의 내용도 조금 더 상세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나름대로 『지암일기』의 내용을 통해 <일민가>를 이해하여 살펴보기는 하였다. 하지만 『지암일기』가 윤이후가 매일 같이 썼던 일기였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일민가>가 그의 인생을 담은 작품이라 정의할 수 있다면 <일민가>는 단편적인 『지암일기』의 내용보다는 『지암일기』 속에 나타난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야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더욱 필요한 것은, 후술하겠지만 <일민가>라는 작품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일민가>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감정은 일정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한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조명할 땐 으레 그 작품 속에서 지속적·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일민가>에선 그러한 것들을 쉽게 추출해내기가 어렵다. 강호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다가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말하기도 하고, 다시 자신의 거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임금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는 등 <일민가> 자체를 하나의 어조나 주제로 엮어내기가 힘들다. 왜 이런 식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일까? 필자는 이러한 궁금증을 『지암일기』의 여러 일기 내용을 통해 풀어내고자 한다. 분명 개인의 감정을 담아낸 일기 속에 <일민가> 내에 여러 목소리가 나타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찾아지는 <일민가>에 대한 보충된, 혹은 새로운 의의를 바탕으로 <일민가>가 갖는 문학적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후술하겠지만 <일민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화자의 목소리가 일정한 어감을 갖는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어떤 부분에서는 특정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나타나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강호 자연에 대한

www.kci.go.kr

만족감, 그곳에서의 흥취가 나타나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내용만을 살펴보면 <일민가>는 하나의 주제의식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선뜻 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윤이후가 <일민가>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바로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윤이후가 <일민가>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며 <일민가>에서 나타나는 윤이후의 의식지향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민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지암일기』에서 두 곳을 찾을 수 있다. 외숙 이락의 <환산별곡>에 대한 기록과 <일민가 소서>가 바로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이 두 기록을 바탕으로 <환산별곡>에 대해 개략적 검토를 한 후 <일민가>의 창작 배경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후 <일민가>와 『지암일기』 내용을 함께 검토해보며 <일민가>에 대해 상고하고자 한다.[8]

2. <일민가>의 창작 배경과 <환산별곡>

한 작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창작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민가>는 어떻게, 어떤 이유로, 어떤 배경에서 창작된 것인지 알아봐야 할 것이다.

> ㈎ 봄에 참군 외숙이 <환산별곡>을 지으셨다. 무릇 가곡이란 문자가 많으면 부인이나 어린아이가 보기 어렵다. 고금의 작자들이 반드시 언문을 쓴 것이 아마도 이 때문일 것이다. 지금 <환산별곡>을 보니 문자가 너무 많고, 혹 고시의 전체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나는 이를 자못 단점으로 여긴다. 그래서 언문으로 장

8) 본고는 『지암일기』 번역본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며, 한시 내용을 인용할 경우는 한문까지 인용을 하고, 내용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는 그 부분의 번역 부분만 인용하기로 한다.

www.kci.go.kr

가를 지어 이에 화답한다. 비록 볼만한 것은 없지만, 마음에 품은 생각을 서술하고 깃들여 한가롭고 자유롭게 자득한 면이 있다. 제목을 <일민가>라고 했다.[9]

(나) 지난봄 참군 외숙께서 <환산별곡>을 지어 보여 주셨다. 내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여 <일민가>를 지어 화답했다. 가소롭고 형편없는 작품이지만, 속마음을 서술하고 흥을 부쳤으니 스스로 만족하는 바가 없지 않다. 원래 외숙께서 가을쯤 내려오시면 설아로 하여금 느린 장단으로 두 곡을 노래하게 하여 두 노인의 소일거리로 삼으려 했는데, 외숙께서 서울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흉보가 오리라고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애초 기쁨을 돋우려 지은 것인데 이젠 가슴 아픈 곡조가 되었으니, 사람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은가? 아아 애통하구나! 무인 여름 지암옹 씀[10]

<일민가>의 창작과 관련하여 『지암일기』에는 두 편의 일기 내용이 보인다. (가)는 1698년 5월 4일자 일기로 <일민가>의 창작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기록 중 5월 16일 일기에 "정동의 참군 외숙께서 별세하셨다는 부음을"[11]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5월 4일자 일기를 쓰기 전까지는 자신의 외숙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고, 그러한 이유로 외숙과 외숙의 <환산별곡>을 생각하며 <일민가>를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의 일기가 <일민가>와 관련된 첫 언급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나)는 <일민가 소서>라는 제목으로 1698년 6월 26일자 일기에 기록된 <일민가> 뒤에 붙은 내용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일민가>는 윤이후 본인의 외숙의 부음을 듣기 전에 창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민가 소서>를 살펴보면 윤이후는 <일민가> 창작 이후에 외숙과 함께 즐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외숙의 죽음으로 인해 그것을 할 수 없게 됨을 슬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자. 두 기록에서는 <일민가>가 어떠한 배경에서 창작됐는지에 대해 확실할 수 있는 부분이 동시에 나온다. 두 기

9) 『지암일기』 1698년 5월 4일 일기.
10) <일민가 소서>, 『지암일기』 1698년 6월 26일 기사일 일기.
11) 『지암일기』 1698년 5월 16일 일기.

www.kci.go.kr

록에서는 모두 참군이었던 본인의 외숙이 <환산별곡>을 창작하였다는 이야기가 모두 나오며 (가)에서는 <환산별곡>을 본 윤이후가 "문자가 너무 많은 것"이나 "고시의 전체 구절을 인용한 것"을 단점이라고 언급하며 그러한 단점을 보강하고자 하는 뜻에서 <일민가>를 창작했다고 언급하고 있고 (나)에서는 "속마음을 서술하고" 자신의 "흥을 부쳤"던 작품이라고 언급을 하고 "기쁨을 돋우려 지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윤이후는 자신의 외숙이 창작한 <환산별곡>을 봤고 그것에 대해 화답하는 작품으로 <일민가>를 창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환산별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겠다. <환산별곡>은 『청구영언』 육당본에서 최초로 소개된 작품으로, 작가가 이황으로 기록된 작품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서 이 작품은 이황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으며[12] 앞서 언급하였듯 『지암일기』의 내용을 보더라도 <환산별곡>이 이황의 작품이 아닌 윤이후의 외숙 이락의 작품이라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환산별곡>이라는 제명에 작가를 직접, 이황이 아닌 자신의 외숙 이락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차적으로 <환산별곡>은 이황의 작품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윤이후의 외숙 이락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어제 올탄말이 오늘이야 왼쥴 알고
葛巾布衣로 故園을 추주가니
山川은 녯빗치요 松竹이 시로왜라
數間 茅屋下의 집주리 一立쌀고
淸風의 興을겨워 閑暇이 누어시니
滿池 紅蓮花는 庭邊의 어릭엿다
아참 시노라니 밤즙는 아희들과
柴門의 기즈즈니 고기웨는 장소로다
隣人親戚들과 白酒黃鷄로 닞노리 가자셰라

12) 이동영, 「<환산별곡> 작자에 대하여 - 퇴계의 소작이 아니다」, 『가사문학논고』, 부산대 출판부, 1987.

www.kci.go.kr

夕釣를 말야ᄒᆞ고 되롱이 몸의 걸고
簑笠을 졋겨쓰고 그물을 두러메고
시니로 ᄎᆞᄌᆞ가셔 黃犢을 칩더타고
夕陽을 띄여가니 崎嶇山路의 風景이 多情하다
帶 淸江은 長天과 一色인ᄃᆡ
細白絲 져그물을 여흘여흘 더져두니
銀鱗 玉尺이 고고이 밋쳣거늘
자나 굴그나 다쥬어 ᄯᅮ니여
잔고기 솟고치고 굴근고기 膾을 쳐서
瓦樽에 거른 술을 朴盞에 가득부어
잡거니 勸ᄒᆞ거니 醉토록 먹은 後에
日落 咸池ᄒᆞ고 月生 東谷커들
업쩌들며 곱쩌들며 柴門을 ᄎᆞᄌᆞ오니
稚子은 扶醉ᄒᆞ고 瘦妻 歡迎이라
아마도 江山主人은 나뿐인가 ᄒᆞ노라

위의 인용한 내용은 <환산별곡> 전문이다. <환산별곡> 내용의 큰 줄기만 이야기하자면 어제 옳던 말이 오늘에서야 그릇된 것을 깨달아 소박한 옷차림으로 자연[故園]을 가 살게 되면서 자연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낚시를 가서 낚은 물고기를 안주로 삼아 사람들과 해가 지고 달이 뜰 때까지 술을 마시고 취한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활이 자연의 주인인 것 같다고 한다. <환산별곡>은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강호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면서 16세기 강호가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제 올탄말이 오늘이야 왼쥴 알고 葛巾布衣로 故園을 ᄎᆞᄌᆞ가니"를 이전에 옳다 했던 것을 이제야 그릇됐다고 깨달아 소박한 모습으로 자연에 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 이것은 곧 벼슬길·속세 일에 대한 거부감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환산별곡>의 이러한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등장하는 자연물들

www.kci.go.kr

이 화자와 직접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기 보다는 그저 자신의 은거지 주변 풍광이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강호 자연을 이야기하면서 자연과의 교감을 위주로 보여주던 16세기 가사와는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자연물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밤 줍는 아이들의 모습이나, 물 놀이를 가는 모습,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고기를 요리하는 모습, 술을 마시고 취하는 모습,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까지, 그 안에 나타나는 흥취나 느낌은 독자가 스스로 느껴야 할 것이지 화자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묾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은자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 경관은 17세기 강호가사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인 전가(田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환산별곡>은 도잠(陶潛, 365~427)의 <귀거래사(歸去來辭)>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흔히들 <귀거래사>는 도잠이 관리 생활을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가 은자(隱者)로 살겠다는 선언을 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지속했던 관리 생활(속세의 생활)을 반성하고, 전원에 몸과 마음을 돌리고, 자연과 일체가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환산별곡>에서도 역시 <귀거래사>에서처럼 “어제 올탄말이 오늘이야 왼쥴 알고”라고 하며 지금까지 자신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연으로 돌아가 은자로서 사는 것을 즐기고 있으며, 이것을 “아마도 江山主人은 나뿐인가 ᄒᆞ노라”라고 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살펴볼 때 <환산별곡>은 17세기 강호가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13]

한편 『지암일기』에서 윤이후가 <환산별곡>에 대해 “문자가 너무 많고, 혹 고시의 전체 구절을 인용”한 점을 단점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볼 수 있다. “문자가 너무 많”다는 것은 작품 안에 국문이 아닌 한자가 많다는 것을 언급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환산별곡>의 내용 중에 한자를 포함한 구가 대부분이니 윤이

13) 강호가사에 대한 논의는 박연호, 「장르론적 측면에서 본 17세기 강호가사의 추이」, 『어문논집』, 민족어문학회, 2002. 참고

www.kci.go.kr

후의 언급은 과장이라 하기 어렵다. <환산별곡>도 역시 앞서 언급한 것들을 종합해본다면 충분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 다만 "고시의 전체 구절을 인용"했다는 점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14]

그런데 사실 <일민가>를 살펴보면 이러한 <환산별곡>의 미의식, 주제의식은 그대로 이어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문자가 너무 많고, 고시의 전체 구절을 인용한 것을 단점으로 지적"하기에는 <일민가> 자체에서 보이는 한자어들이 너무나도 눈에 띄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청구영언』 육당본에서 전해지는 <환산별곡>은 <일민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해야 할까?

그렇게 결론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다시피 두 작품은 주제의식이나 주제를 구성하는 모습에서 유사함을 보이며 <일민가>는 <환산별곡>의 주제의식을 이어받고, 더 나아가 그것을 발전시킨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가령 <환산별곡>에서 나타나는 귀거래의 모습이 <일민가>에서도 나타나며 더 나아가서는 귀전(歸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민가>에서는 <환산별곡>에서 나타는 강호에 직접 생활하며 그것에 대한 예찬적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표기 언어에 대한 문제는 지금 당장 확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한다. 주지하듯 『청구영언』 육당본은 가창을 목적으로, 당대 유행하던 노래들이 수록된 가집이며 실제 가악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주도하여 편찬된 가집이다. 그렇기에 가집에 실린 그 자체를 작품 전체가 실린 것이라고 확신하기엔 어렵지 않을까? 국문 장형시인 가사가 입으로 가창되었는데, 그 작품들이 모두, 온전히 수록되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한다. 더군다나 『청구영언』 육당본의 향유계층이 상층

14) 왜냐하면 이때의 '고시(故詩)'를 한시(漢詩)로 해석해야 할지, 시가(詩歌)로 해석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환산별곡>은 도잠의 <귀거래사>의 영향을 일정정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귀거래사>를 '시(詩)'로 언급했을까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 만약 <귀거래사>를 '시'로 언급한 것이라면 윤이후가 언급한 "전체 구절"이라는 것에도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과 교류했던 전문 가객들이었다는 점을 살펴보면 상층에 입맛에 맞는 부분만 『청구영언』 육당본에 수록된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해남을 왕복하며 다니던 이락의 작품이 서울에서 나름대로 유행하였고, 그 작품 중 일부분이 『청구영언』 육당본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15]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해본다면 윤이후는 ①참군 이숙의 <환산별곡>의 영향을 받아 <일민가>를 창작하였으며 ②<환산별곡>과 함께 수창(酬唱)할 작품으로서 <일민가>를 창작하였고 ③<환산별곡>은 17세기 강호가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니, 수창할 작품으로서 창작한 <일민가> 역시 이러한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자, 혹은 그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다른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 창작됐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④<환산별곡>은 한자어가 너무 많아 노래로 부르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것을 보완하여 <일민가>에서 보여주고자 하였을 것이고 ⑤ 특히 "한가롭고 자유롭게 자득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기 위해 <일민가>를 창작했던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이후는 <환산별곡>에 영향을 받아 <일민가>를 창작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

3. <일민가>에 나타난 윤이후의 의식 지향

<일민가>는 크게 전반부, 후반부, 결말부로 나눌 수 있으며 전반부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후반부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부기된 것을 바탕으로 나눈 것으로, <일

15) 『청구영언』 육당본에 대한 내용은 김용찬, 「『청구영언』(육당본)의 성격과 시가사적 위상」,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57~76쪽. 참고.

www.kci.go.kr

민가> 중에 “이 이상은 옥천 전가의 지극한 즐거움에 대한 서술이며, 이 이하부터는 죽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此以上述玉泉田家至樂 此以下說竹島江湖之勝]”는 부기를 통한 것이다. 즉 이러한 부기를 바탕으로 <일민가>의 전반부는 윤이후가 옥천에서 살 때에 느꼈던 감정을, 후반부는 죽도 정원 축수 후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감정을 술회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민가>를 자세히 살펴보며 <일민가>가 무엇을 말하기 위해 창작됐는지 살펴보자.

3.1. 은거의 이유 - 정치적 실패와 옥천에서의 삶

이몸이 느지나셔 世上의 흘일업서
江湖의 님자되야 風月노 늘거가니
物外淸福이 업다야 ᄒᆞ랴마는
도ᄅᆞ혀 셩각ᄒᆞ니 애ᄃᆞ론 일 하고 만타
萬物의 貴ᄒᆞᆫ거시 사ᄅᆞᆷ이 웃듬인ᄃᆡ
그 듕의 남자ㅣ 되야 耳目聰明 ᄀᆞ초삼겨
平生의 머근 ᄠᅳ디 一身 富貴 아니러니
年光이 倏忽ᄒᆞ고 志業이 蹉跎ᄒᆞ야
白首功名을 계유구러 일워내니
蹤跡이 저어하고 世路도 崎嶇ᄒᆞ야
數年郎潛의 ᄂᆞᆷ ᄇᆞᄅᆞ와 ᄃᆞ니더니
三春暉 수이 가니 寸草心이 그지업서
銅章을 비러ᄎᆞ고 [爲親乞外故云] 五馬를 밧비모라
南主 百里地예 與民休息 ᄒᆞ랴터니
니마 흰 모딘 ᄇᆞᆷ이 어드러셔 나닷날고 [咸非抽姓而李寅爆亂入杖前官下吏及時任監官]
ᄀᆞᆺ드기 여룬 宦情 一朝의 ᄌᆡ되거다

인용한 부분은 <일민가> 전반부의 앞부분(1-16구)이다. 이 부분에서는 세상일에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자연에 주인으로서 늙어가다 이 작품을 창작했

www.kci.go.kr

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일민가>를 창작하기까지, 그 늙어과는 과정이 크게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도 역시 언급하고 있다. '물외청복(物外淸福)'이라는 것은 세상 밖에서의 소박한 삶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연에서의 삶을 의미하겠다. 현재까지의 삶 속에 그것이 없다고는 할 순 없겠지만 생각해보니 애 닳았던 일이 많았다고 이야기한다. 자신은 남자로 태어나 부귀공명에 뜻을 두진 않았지만 입신양명을 위해 노력하였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은 후에야 관직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윤이후는 1679년 44세에 생원시에 급제를 하고[16], 십 년 뒤인 1689년 증광시에 급제하여[17] 이후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이조좌랑(兵曺佐郞), 정랑(正郞), 선혜청랑(宣惠廳郞),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등을 역임한 것을 살펴보면 작품 속의 내용이 윤이후 자신의 과거에 대한 술회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겨우 이뤄낸 성과였지만 이후 승진은 더뎠고, "爲親乞外故云"라는 부기와 "銅章을 비러츠고" 작품 내용을 보니 부모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효심으로 외직을 청하였던 것을 알 수 있으니, 이때 청한 외직으로 1691년 함평현감이 됐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윤이후는 함평 현감이 되어 남쪽 땅의 주인이 되어 백성과 더불어 휴식을 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흰 모진 범으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벼슬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한다. 이 부분이 <일민가>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이다.

여기에서 말한 흰 모진 범은 1692년 우도암행어사로 발탁된 이인엽(李寅燁, 1656~1710)을 의미하는 것으로 '흰 범'은 그의 이름 '인엽'을 훈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인엽과 관련된 일화는 『지암일기』 몇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인엽이 암행어사로서 도임할 때 한 아이가 그에게 편지를 바치고 달아났고, 그것이 이지송이란 인물에 대해 고발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면서 자신과 이지송을 엮어 생각할까 걱정하고[18], 암행어사가 자신을 침해하진 않는다는

16)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숙종(肅宗) 5년(1679) 기미(己未) 식년시(式年試)」 부분 참조.
17)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숙종(肅宗) 15년(1689) 기사(己巳)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부분 참조.

www.kci.go.kr

얘기를 들었으나 그것 자체에 신뢰를 하지 않고 있으며[19], 이후 이지송에 대한 형벌이 연속되는 모습을 언급하다가[20] 이인엽이 자신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겠다는 언급만 하고 만다.[21]

그런데 당시 윤이후는 1692년 2월에 이미 함평 현감 사직서를 냈고[22], <일민가>에 언급한 대로 병든 부모를 위해 정장(呈狀)하여 휴가를 받아[23] 해남에 내려와 있었다. 그런데 함평에서 온 편지를 보니 아직 암행어사가 서계를 내리기 전이라 체직(遞職)이 허락되지 않았다 하다가[24] 마침내 암행어사의 서계로 인해 체직이 아닌 파직에 이르렀다고 언급한다. 이후 암행어사가 추고한 후 이

---

18) 『지암일기』 1692년 1월 25일 첫 번째 내용. "이번 암행어사의 행차(行次)가 현 경계에 도착하던 날에 어린 아이 하나가 길 가에서 편지를 바치고 바로 달아났다 하니, 종잡을 수 없는 이 지역 인심이 참으로 한심하다. 그러나 만약 송(松, 이지송)이 범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에 이르렀겠는가. 나 또한 송(松)에게 잘못 이끌림을 당함을 면치 못하여 이러한 곤경에 처했으니, 비로소 성인께서 소인을 멀리하라 한 가르침을 믿겠다. 하지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랴."

19) 『지암일기』 1692년 1월 27일 세 번째 내용. "암행어사의 행차(行次)가 임치(臨淄)에서 되돌아와 수양촌(水陽村)에 도착했는데, 길을 따라 가리역(加里驛)으로 곧바로 가서 말을 먹이고, 저녁에 영광(靈光)공간으로 출발하였다. … 들으니, 암행어사가 나를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풍문을 바탕으로 삼리(三吏)의 죄만을 추치(推治)한다고 한다. 그 풍문이라는 것이 필시 비방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일 터이니, 통탄스럽다. 그러나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어찌 알겠는가."

20) 『지암일기』 1692년 1월 28일 네 번째 내용. "암행어사 이인엽(李寅燁)이 영광(靈光)에 도착하여 형(刑)을 시행하였는데, 고재민(高再敏)과 이무지(李茂枝)는 각각 한 차례 시행하고 풀어주었고, 이지송(李之松)은 한 번 사나운 형을 시행하고 다시 고창(高敞)으로 옮겨 가두었다.; 같은 책, 1692년 2월 4일 세 번째 내용. 이지송(李之松)이 장성(長城)으로 옮겨 수감되어, 다시 한 차례 형신을 받고 풀려났다."

21) 『지암일기』 1692년 3월 22일 세 번째 내용. "… 우도 암행어사가 내 일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지 모르겠다."

22) 『지암일기』 1692년 2월 4일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보냈던 사직서를 다시 불러들여 어구를 고쳐서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미 사직서를 쓰고 보냈던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옥경(玉卿) 영감의 뜻에 따라, 보낸 사직서를 다시 불러들여 어구를 고쳐서 내보냈다."

23) 『지암일기』 1692년 2월 26일 세 번째 내용. "병든 부모를 돌아가 뵙는 일로 정장(呈狀)하여, 휴가를 받았다. 정말 다행스럽다."

24) 『지암일기』 1692년 3월 23일 세 번째 내용. "… 또 암행어사의 서계(書啓)가 아직 회계(回啓)되기 전이므로 체직을 허락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데김이 내려왔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걱정이다."

www.kci.go.kr

조판서가 계달한 바에 따라 취리한다고 했다는 언급이 나오며 이것이 그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냐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인다.[25] 그런데 의아한 것은 윤이후가 그것에 대해 다행이라[可幸] 언급한다는 것이다.

다행이라 한 이유는 이후에 보이는 이후의 일기 내용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 있다. 암행어사 이인엽이 한양으로 돌아가 암행어사로서의 일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전라도 관찰사였던 이현기(李玄紀)가 대사관이 되면서 상소를 올리며 이인엽이 왕명을 근실히 받들지 않았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고, 이에 놀란 이인엽 역시 이현기의 아들이 뇌물 수수와 관련되었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린다. 그리고 여기에 반박하면서 다시 이현기가 상소를 올리며 이인엽의 잘못된 점을 더욱 드러냈다는 일기의 내용이 보인다.[26] 이현기라는 인물이 이렇게 이인엽에 대해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현기는 지봉 이수광(芝峯 李睟光, 1563-1628)의 증손으로 윤이후의 넷째 아들 윤두서의 처남인 인물이다. 그렇게 되면 윤이후와 사돈 관계가 되는데, 아마 이인엽이 윤이후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매형인 윤두서에게 얼핏이라도 들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나름의 보호책으로서 이인엽에 대해 공격적인 상소를 썼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이현기가 기사환국(己巳換局)이후 여러 요직을 역임한 17세기 말 남인의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상기해보

25) 『지암일기』 1692년 3월 27일 세 번째 내용. “들으니 암행어사의 서계(書啓) 때문에 마침내 파직에 이르렀다고 한다. 체직(遞職)되고자 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던 차에 마침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암행어사가 추고(推考)한 후 이조판서가 계달(啓達)한 바에 따라 취리(就吏)한다고 한다. 이렇게 한다 해서 또한 그에게 무슨 보탬이란 말인가.”

26) 『지암일기』 1692년 4월 10일 세 번째 내용. “암행어사가 복명(復命)하기 전에 전라도 관찰사 이현기(李玄紀)가 대사간(大司諫)으로 올라가 사직 상소를 올려서, 이인엽(李寅燁)이 일을 근실하게 받들지 않은 정황을 말했다. 이인엽 역시 상소를 올려 강진 현감개념 방만원(方萬元)이 박선교(朴善交)에게 뇌물을 주어 전최(殿最)에서 1등을 할 것을 도모한 일을 낱낱이 개진하고, 감사의 아들 진사 【바로 한조(漢朝)를 가리킨다】 에게 돌렸다. 달리 흠을 거론한 것도 많았다. 대사간(大司諫)은 또 자신의 명백함을 개진하는 소로 이인엽의 일을 더욱 드러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좋지 않다. 결말이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3월 13일 임술 2번째 기사와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3월 14일 계해 2번째 기사에서도 보인다.

www.kci.go.kr

면, 대표적 남인인 윤선도, 그리고 그의 손자인 남쪽에 생존한 대표적 남인인 윤이후를 보호하고자 했던 것을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27]

그럼에도 윤이후 본인이 자신의 파직을 다행이라 하고 이 일기 내용에서 이인엽과 이현기가 대립하는 모습을 "이쪽이나 저쪽이나 좋지 않다[以此彼此□□□不佳]"고 언급한 것은 이인엽은 혹시 모르게 자신에 대한 모함을 할 수 있으니 좋지 않은 것이며 이현기는 자신의 허물도 생각하지 않고 상대 당파인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허물이 드러나게 되었으니 좋지 않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 체직이 아니라 파직이 다행이라 한 것은 부모에 대한 효심을 지킬 수 있어서인 것 뿐만 아니라 서인 노론 계열의 이인엽과 더 이상 엮이지 않을 수 있어서, 정쟁에 굳이 끼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윤이후는 이인엽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컸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작품에서는 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나 훈차까지 해가며 굳이 언급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작품 속에서 굳이 부기를 했던 것을 보면, 이인엽으로 인해 생겼던 모든 일들이, 그만큼 범에게 물린 듯한 아픔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동시에 이인엽으로 인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었으며 심지어 자신을 비호해주려던 행동을 취한 집안 사람은 결국 파직되기도 한 것을 보았다.[28]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 세상은 위험한 곳이었던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가뜩이나 엷었던 관인의 길이 재가 되었다고, 그래서 더 이상은 관직을 위해 살지 않고, 자연에 들어가 살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

27) 이후 이현기는 갑술옥사(甲戌獄事, 1694)로 인해 고금도로 유배되는데, 윤이후는 이현기를 직접 찾아가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했다는 것을 『지암일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28) 『지암일기』 1692년 5월 17일 다섯 번째 내용. "… 암행어사 이인엽은 염문(廉問)을 잘하지 못한 죄로 몇 달 동안 갇혀 있다가 고신(告身, 임명장)을 빼앗기고 석방되었다. 전 전라도 관찰사 이현기(李玄紀)는 암행어사가 서계(書啓)하기 전에 지레 먼저 소(疏)를 올려 역격(逆擊)한 것과 같음이 있으므로 파직되었다. … "

www.kci.go.kr

저즌 옷 버서노코 黃冠을 ᄀᆞ라쓰고
치하는 ᄇᆞᆯ텨쥐고 浩然이 돌아오니
[吾見辱之後 呈將乞遞 而監司洪萬朝不許 余卽解符送兼任靈光 遂棄官歸]
山川이 依舊ᄒᆞ고 松竹이 반기ᄂᆞᆫᄃᆞᆺ
柴扉를 차자드러 三逕을 다ᄉᆞ리니
琴書 一室이 이 아니 내 分인가
압내히 고기 낫고 뒷뫼히 藥을 키야
手業을 일노 사마 餘年을 보내노니
人生至樂이 이 밧긔 ᄯᅩ 업돗데

이 부분은 전반부의 두 번째 부분(18~25구)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젖은 옷을 벗었다는 것은, 세상에 젖은 옷, 환로를 꿈꾸던 자신의 꿈을 벗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평민이 입는 옷으로 갈아 쓰고, 말채 하나 쥐고 자연으로 호연히 돌아오니 산천은 예전과 같고 소나무와 대나무는 여전한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하여 삼경으로 일컬어지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거문고 책과 방 한 칸이 내 분수임을 언급하고, 고기를 낚고 약을 캐는 것으로 여생을 보내니,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지극한 즐거움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이 부분은 일반적인 은거지사의 노래를 보여주고 있다. 주변 경관에 대한 예찬,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것이 지극한 즐거움이라 언급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다만 내용상으로는 특별할 것이 없으나 부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부기의 내용을 해석해본다면, “내가 욕을 당한 후 정장하여 체직을 청원했으나, 관찰사 홍만조가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즉시 부절을 풀어 겸임인 영광군수에게 보내고는 마침내 관직을 버리고 귀향했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내용 그대로 믿어야 할지는 의문이다. 앞서 전반부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봐서 알겠지만, 윤이후에게 ‘욕을 당한 일’은 이인엽이 해남에 행차한 것(1692년 1월 25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사직서가 제출된 것은

www.kci.go.kr

이인엽이 행차한 이후에 사직서를 고쳐 쓴(1692년 2월 4일) 이후일 것이고, 심지어는 돌아가 병든 부모를 뵙는 일로 정장하여 휴가를 허락받기(1692년 2월 26일)까지 하였다. 또한 홍만조가 전라 관찰사가 된 것은 1691년 12월 3일이었는데[29] 이날 이후와 완성된 사직서를 제출하여 체직을 청원한 날 이후와 이인엽의 해남현 행차 날짜들을 놓고 보았을 때 부기된 내용은 일기의 내용이나 실록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보자. 윤이후는 파직을 당한 후 인수인계문서를 주고 받으며 함평 현감 일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런데 함평에서 사직한 후 윤이후에게 악감정이 있는 이가 좌수가 되어 윤이후가 한 일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면서 윤이후의 측근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함평의 새로운 현감이 윤이후 자신의 일처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온 함평 사람들이 자신을 질시할 것을 걱정한다.[30] 그렇게 본다면 전반부 앞 부분에 나온 부기 "함평은 사정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이인엽이 난입하여 전임 아전들 및 현임 감관에게 곤장을 쳤음"도 전임 아전들 및 현임 감관들에게 곤장을 친 것은 이인엽이 아닌 수임을 얻은 정협의 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반부에 나타난 부기

29) 『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 12월 3일 계미 1번째 기사.

30) 『지암일기』 1692년 5월 17일 첫 번째 내용. "내가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온 후, 함평에서는 온 고을[一鄕]이 향청(鄕廳)에 모여 내가 관에 있을 때의 일을 하나하나 따져 심하게 장(杖)을 쳤다. 하리(下吏) 이두규(李斗奎), 고재민(高再敏), 장만웅(張萬雄) 등은 체직되고, 내가 차임(差任)한 해창감(海倉監) 김시량(金時亮)과 사창감(社倉監) 윤원경(尹元卿) 등은 온갖 방법으로 부탁하여 차임되었다는 등의 말로 죄목을 걸어 중벌을 내렸다. 정협(鄭挾)을 좌수(座首)로 삼았다. 정협은 바로 내가 신관(新官)일 때의 좌수로, 불법을 많이 저질러 온 고을에서 비방을 받았지만 스스로 해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중벌로 다스리게 하다가 그만두고 태(笞) 수십 대를 때리고 쫓아내었다. …… 지금 정협이 수임(首任)을 얻어 즉시 향청에 들어가 형리에게 준 보초를 책출(責出)하여 불태우고, 분풀이할 생각으로 마음먹은 것을 멋대로 행하였다. 그 두 창(倉)의 감관을 논박하여 체직하고 좌수에 차임되기를 도모한 것은 모두 정협이 온 고을을 격동시켜 한 것이다. …… 인심을 헤아리기 어렵기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통탄스럽고 통탄스럽다. 새 수령 심군직(沈君直)은 필시 이러한 곡절을 모르고 잘못 처리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간단한 편지를 써서 사람을 보내, 내가 온 고을에서 질시 받는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심군직의 뜻을 또한 어찌 알겠는가?"

www.kci.go.kr

는 윤이후의 오기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아마 제대로 기억을 하지 않은 채 파편적으로 기억나는 것들을 적었고, 이것들은 앞서 언급하였듯 이인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투영된 것으로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3.2. 죽도에서의 삶 - 세속에 대한 욕심과 은거에 대한 욕심의 사이

田園의 나믄 興을 전나귀예 모도 시러[此以上述玉泉田家至樂 此以下說竹島江湖之勝]
靑莎 白石 夕陽路의 홍치며 도라노니
縹緲ᄒᆞᆫ 一片 孤島 眼中의 기특ᄒᆞᆫᄃᆡ
微茫ᄒᆞᆫ 十里烟波ᄌᆞ차 어이 둘럿ᄂᆞᆫ고
三山이 흘러온가 五湖과 엇더ᄒᆞ니
蒼松은 落落ᄒᆞ고 翠竹이 猗猗ᄒᆞᆫᄃᆡ
超然ᄒᆞᆫ 草堂數間 믈 우희 빗겨시니
幽趣도 ᄀᆞ이 업고 爽快도 ᄲᅡ이 업다
白日이 閑暇ᄒᆞᆫᄃᆡ 봄 좁이 足ᄒᆞᆫ 後의
발 나믄 낙시대를 엇게예 두러메고
片舟를 흘리저어 任意로 容與ᄒᆞ니
江風은 習習ᄒᆞ야 鶴髮을 흣부치고
白鷗ᄂᆞᆫ 飛飛ᄒᆞ야 버디되야 넙노ᄂᆞᆫ다

이 부분은 <일민가> 후반부의 첫 번째 부분(26~38구)이라 할 수 있다. 전원에서의 남은 흥, 즉 전반부의 두 번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언급한 옥천에서의 즐거움을 죽도로 옮겨 가져간다. 특히 "표묘한 일편 고도"는 죽도를 상징하는 말로, 현재 죽도는 길이 모두 나있지만 당시에는 이름 그대로 섬이었다. 윤이후는 이 주변을 자신의 별서로 삼기 위해 제언을 쌓는 일을 하였으며, 이때 새롭게 제언을 쌓기도 하고 버려진 제언을 다시 쌓기도 하였다.[31] 자신이 공들여 만든 이 별업을 신비한 공간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

31) 『지암일기』를 살펴보면 윤이후는 1692년 3월부터 12월까지 죽도 제언 수축 공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ww.kci.go.kr

이 삼산이나 오호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다. 그리고 아침부터 일어나 낚싯대를 매고 작은 배를 타고 목적지 없이 낚시나 하는 어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나타나는 어부의 모습은 흔히들 말하는 가어옹(假漁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후반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죽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환산별곡>에서 나타나는 가어옹의 모습이랄지 주변 경관에 대한 표현, 자연물에 대한 객관적 서술, 흥에 대한 직접적 언급 회피, 가어옹과 전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嚴子陵의 七里灘은 物色이 ᄎᆞ자오고
賀季眞의 鏡湖水ᄂᆞᆫ 榮寵으로 어더시니
羊裘를 못 버스니 避키 아니 어려오며
君恩을 니븐 後의 갑기를 어이ᄒᆞ리

그런데 이어지는 이 짧은 부분(39~42구)에서 보이는 화자 감정의 기저는 전반부의 앞부분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엄자릉의 칠리탄에 물색이 찾아온다"는 것은 엄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엄광은 칠리탄으로 은거한 사람인데 임금은 그런 엄광을 그리워하였고, 그림을 그려 그를 찾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32] 이어지는 하지장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은거를 할 때 현종이 경호(鏡湖)의 한 부분을 줬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33]이다. 이 두 이야기가 <일민가>에 나타난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이다. 앞서 잠깐 이야기 했듯 이

32) 엄광(嚴光)은 어릴 때 한나라 광무제(光武帝)와 함께 공부하였는데, "광무제가 즉위하자, 엄광이 성명을 바꾸어 은거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광무제가 그의 현명함을 사모하여 명을 내려 탐문해 찾게 하였다.[光武卽位, 乃變名姓, 隱身不見. 帝思其賢, 乃令以物色訪之.]"는 부분이 전해지는데 이 부분에 "그의 모습을 그려서 찾게 하였다.[以其形貌求之]"라는 대목이 보인다.

33) 당(唐)나라 현종(玄宗) 때 하지장(賀知章)이 벼슬을 그만두고 향리로 돌아가자, 현종이 경호(鏡湖)의 노래 하나를 하사한 고사가 있는데, 이백(李白)의 〈대주억하감(對酒憶賀監)〉 시에 "조칙으로 경호의 물을 하사하시어, 그대의 대소에 영광이 되게 하셨도다.[勅賜鏡湖水 爲君臺沼榮]"라는 표현이 나온다. 감호는 즉 경호(鏡湖)이다. 『李太白集』 卷22

www.kci.go.kr

부분은 전반부의 앞 부분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엄광의 칠리탄 이야기나 하지장의 경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은거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다. 그런데 윤이후는 굳이 '물색(物色)'을 이야기한다거나 '영총(榮寵)'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것은 마치 임금에 대한 연군의식을 어떻게 해서든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되는 일기의 내용 일부를 살펴보자

> 서울에서 보낸 편지를 보고 6월 22일에 대정(大政)이 있었으며, 세초(歲抄)는 그전에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만 홀로 서용(敍用) 되지 못하는 것은 암행어사 이인엽(李寅燁)의 서계(書啓)로 내가 파직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본래 관직에 뜻이 없었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로는 더더욱 관직에 나갈 생각이 없었으니, 비록 잃고 얻는 것에 개의치 않으나, 상감께서 반드시 내가 관계된 일이 모두 이인엽의 말과 같다고 여기실 것이니, 참으로 황송하고 통탄스런 일이다.[34]

전반부에서 언급했던 이인엽에 대한 언급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일기이다. 자신이 다시 관직을 받지 못한 것은 이인엽이 올린 서계로 파직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그런데 자신은 어차피 관직에 뜻이 없었으니 다시 관직을 받지 못한 것은 괜찮으나 임금이 자신에 대해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은 걱정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윤이후는 함평현의 대동미 유용 사건에 연루되어[35] 1693년

34) 『지암일기』 1692년 7월 18일 여섯 번째 일기. "… 나만 홀로 서용(敍用) 되지 못하는 것은 암행어사개념 이인엽(李寅燁)의 서계(書啓)로 내가 파직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본래 관직에 뜻이 없었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로는 더더욱 관직에 나갈 생각이 없었으니, 비록 잃고 얻는 것에 개의치 않으나, 상감인물께서 반드시 내가 관계된 일이 모두 이인엽(李寅燁)의 말과 같다고 여기실 것이니, 참으로 황송하고 통탄스런 일이다."

35) 1691년 삼남 및 경기도의 저치미 상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있었는데, 함평현은 미봉(未捧, 백성들에게 대여했다가 거두지 못함) 액수가 커서 당시 현감 민순이 처벌받았다. 그런데 1693년에 이 미봉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었던 후임 현감들에 대한 논죄가 문제가 되어 민순의 후임으로 1691년부터 1년간 현감으로 재직했던 윤이후도 조사를 받게 된다. 『지암일기』 1693년 3월 6일 다섯 번째 일기. "… 그제 서울에서 온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몇 년 전 저치미(儲置米)에 대해 조사했을 때 함평현(咸平縣)이 (민간 및 고마청 등 다른 곳에 빌려주거나 썼다가) 받지 않은 수량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www.kci.go.kr

9월 21일에 해남을 출발하여 10월 6일에 서울을 도착하고, 10일에 의금부에 수감되었다. 이후 24일에 판의금이 참가한 의정부의 회의에서 임명장 추탈의 벌이 확정되어 당일 저녁 석방된 윤이후는 11월 1일에 서울을 떠나 12일 밤에 팔마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역시 윤이후는 본인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역시 임금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걱정했을 것은 자명한 바이다.

이어지는 구들을 보면 양구[36]를 못 벗는다는 것은 은거생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이제는, 현재는 그것을 피하기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피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은 그것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지 그것이 온전히 본인이 원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뒤에서도 임금의 은혜를 입고 갚고 싶으나 갚을 길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광의 모습을 찾던 임금도, 하지장을 위해 경호수 일부분을 내어준 임금의 모습도 모두 자신의 임금에게서 찾은 것이며, 그 은거자들을 자신에게 투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 江山은 걸린고디 바히 업서
멋 히롤 無主ᄒᆞ야 내 손의 도라오니
하ᄂᆞᆯ이 주신 쟉가 人力으로 어들소냐
人間의 ᄭᅮᆷ을 ᄭᅵ야[取大夢誰先覺之意]世事롤 다 ᄇᆞ리니
滄浪 蹤迹 알 리 업다 漁釣生涯 뉘 ᄃᆞ토리

당시 현감인 민순(閔純)이 영문(營門)에서 장을 맞았는데, 그 후임 수령들 또한 방치해 두고 받지 않았으므로 이 때문에 장차 해당 현감들을 논죄(論罪)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나에게도 해당되므로 듣고서 놀랍고 염려되어, 그 곡절을 알아보기 위해 함평(咸平) 향리에게 사람을 보냈다."; 1693년 8월 7일 두 번째 일기. "함평현(咸平縣)에서 대동미(大同米)를 나이(那移, 那移出納의 준말. 수입과 지출을 정당하게 하지 않고 조작하거나 유용하는 것. 정당하게 출납하지 않는 것.)했다가 환수하지 못한 사건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찰사가 편지를 보내 상의했으나,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적당히 처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36)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양구'도 역시 엄광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구'를 은자의 옷을 의미한다고 하여 그것을 입는 자가 바로 은자라고 도식화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일민가>에서는 앞 구에서 엄광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양구'가 나온 것으로 보아 엄광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www.kci.go.kr

박잔의 술을 브어 알마초 머근 後의
水調歌ᄅᆞᆯ 기리 읇고 혼자셔셔 우즐기니
浩蕩ᄒᆞᆫ 미친 興을 힝혀 아니 ᄂᆞᆷ 알게고
ᄒᆞ마 져믈거냐 먼 뫼히 ᄃᆞᆯ 오ᄅᆞᆫ다
그만ᄒᆞ야 쉬여보쟈 바회예 ᄇᆡᄆᆡ여라
平涼子 빗기 쓰고 烏竹杖 흣더디며
沙堤ᄅᆞᆯ 도라드러 石逕으로 올라가니
五柳宅 瀟灑ᄒᆞᆫᄃᆡ 景物이 새로왜라
松陰의 흣거ᄅᆞ며 遠近을 ᄇᆞ라보니
水月이 玲瓏ᄒᆞ야 乾坤이 제곰인ᄃᆞᆺ
熙熙皡皡ᄒᆞ야 身世ᄅᆞᆯ 다 니ᄌᆞᆯ다

이어지는 부분(43~58구)에서“아마도 이 강산은 걸린 곳이 전혀 없다” 할 때의 ‘걸린 곳’은 세상사, 속세에 걸린 곳이 없다한 것으로 보인다. 속세의 삶에서 벗어난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마도’라고 굳이 언급한 것도, 앞 네 구에서 언급한 것, 임금에게 가고 싶으나 정쟁 사이에 피해를 입게 된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연 속에 은거하게 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죽도에 들어온 것이다. 작품에서는 죽도에 주인이 없었다 하였으나, 실제 주인은 성준익(成峻翼)이라는 인물로, 해남 윤씨 집안의 데릴사위였던 그가 죽도를 물려받아 1650년 제언을 쌓아 거주하였고, 1687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윤이후에게 죽도를 팔게 된다.[37] 어찌됐건 윤이후의 입장에서는 평소에도 갖고 싶었던 땅이 의도치 않게 자신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이것을 하늘이 주신 것[38]이라 하고 있다. 그

37) <죽부초려기(竹阜草廬記)>, 『지암일기』 1695년 7월 4일 일기. “…지난 경인년(1650)에 창녕 성씨 성준익 공이 처음으로 섬의 동쪽과 서쪽 모퉁이에 제방을 쌓아 육지와 연결된 땅으로 만들어 섬의 남쪽 기슭에 거처했다. 그 뒤 38년이 지난 정묘년(1687)의 큰 흉년 때 성 공이 이를 팔아 구명하고자 하기에, 내가 육지의 땅과 바꾸었다 ….”

38) 위의 글. “…이 섬이 중간에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단지 평범한 사람이 머무는 곳이 되고 만 것은 사수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이제 뜻밖에 내 소유가 되었으니, 이는 조물주가 안배한 것이며 사람과 산수가 서로 만난 것이라 할 수 있다. … ”

www.kci.go.kr

리고 여기에 "'대몽수선교(大夢誰先覺)'의 뜻을 취함"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기가 적혀있다. 이것은 제갈량이 융중에 은거하고 있을 때 유비가 찾아오니 읊은 시구[39] 중 일부를 말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누가 큰 꿈을 깨웠는가."정도로 할 수 있는데, 시구 하나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작품 전체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은거를 해야 한다, 은거를 지속하겠다는 제갈량의 말을 인용하며 인간의 꿈, 즉 세속적 성공에서 깨어나 세상의 일을 다 버린다, 즉 세상일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 은거의 뜻을 두게 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초사』 <어부>의 내용을 가져오며 오부로서의 삶을 살겠으며 누구와 다투겠느냐며 자연 속에서 잘 살아가겠다고 한다. 술을 마시고 취하며 <수조가>를 부르고 나름의 움직임도 하면서 살고 있다며, 이런 흥을 누가 알겠느냐며, 다툴 사람 없는, 혼자만 느끼고 알 수 있는 호젓한 흥을 추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해가 저문 후에 달이 떠 배를 그만 타고 육지로 올라오는 것을 말하며 배 위에서의 흥을 마무리 짓는다.

그리고 육지로 돌아온 어부가 길을 돌아다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도연명의 모습[五柳宅]을 보여주며 가어옹으로서의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죽도 주변 경관을 살피고 있다. 소나무 숲을 걸으며 먼 곳과 가까운 곳을 살피고 물에 비친 달까지 보며 눈 앞에 있는 자연물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보고, 느끼며 희희호호(熙熙皞皞)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잊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후반부 두 번째 부분을 본다면 윤이후는 모든 갈등에서 오는, 그리고 속세에서 겪은 괴로움들에서 벗어나 강호 속에 완벽히 귀의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제 윤이후는 자신 만의 행복을 찾았다고 할 수 있을까?

39) 제갈량이 일찍이 융중(隆中)에 은거하고 있을 적에 읊은 시에 "초당에 봄잠이 넉넉하니, 창 밖의 해는 더디기만 하구나. 큰 꿈을 누가 먼저 깰꼬, 평생을 내 스스로 아노라.[草堂春睡足 窓外日遲遲 大夢誰先覺 平生我自知]" 한 데서 온 말이다.

www.kci.go.kr

3.3. 일민의 자세 – 속세와 자연 사이의 선택

이 中의 민친 ᄆᆞᅀᆞᆷ 北闕의 둘려시니
謝安의 絲竹陶寫 네일이 오놀일쇠
내 근심 無益ᄒᆞᆫ 줄 모ᄅᆞ디 아니ᄒᆞ딕
天性을 못變ᄒᆞ니 진실노 可笑ㅣ로다
두어라 강호의 逸民이 되야 祝聖壽ㅣ나 ᄒᆞ리라

<일민가>의 마지막 부분(59~63구)이니 결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위에서 언급한 질문은 이 부분을 통해 대답할 수 있겠다. 아니다. 윤이후에게는 여전히 임금, 북궐, 궁중,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 사안과 관련된 고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우울감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럴 때는 음악으로 기분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40] 즉 <일민가> 결사에서는 애상감· 우울감을 음악으로 없애는 것, 즉 북궐에 맺힌 마음을 음악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근심이 무익한 것을 알지만 천성, 즉 임금에 대한 마음은 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임금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저 아무 것도 못하고 자연 속에 있어야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가소롭다고 자평한 후 강호의 일민이 되어 임금의 장수나 빌겠다고 이야기한다. 즉 자연 속에 살고는 있으나, 그것이 온전히 자신의 뜻대로 된 것은 아니었으니 결국에는 자신의 삶이 가소롭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윤이후는 완벽하게 자연에서의 삶에 녹아들었다 하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사 뒤에 '여음(餘音)'이라는 제목의 시조 한 수[41]가 보인다.

---

40) 진(晉)나라 사안(謝安)이 왕희지(王羲之)에게 "중년 이래로 애상(哀傷)에 젖곤 하는데, 친우와 헤어지고 나면 며칠간은 우울하기만 하다.[中年傷於哀樂 與親友別 輒作數日惡]"라고 하니, 왕희지가 "나이가 만년에 이르면 자연히 그렇게 되기 마련이다. 그런 때는 음악으로 기분을 풀어야 하는데, 다만 아이들이 알아서 즐거운 흥취를 방해받을까 그것이 늘 걱정이다.[年在桑榆 自然至此 正賴絲竹陶寫 恒恐兒輩覺 損欣樂之趣]"라고 답한 고사가 전한다. 『世說新語』 言語.

41) 世上이 ᄇᆞ리거ᄂᆞᆯ 나도 世上을 ᄇᆞ린 後의/江湖의 님자되야 일 업시 누어시니/어즈버 富貴

www.kci.go.kr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은 이미 『지암일기』 1695년 10월 23일자 일기에 언급된 작품이다. 그렇다면 이때 일기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

> 앞의 시에 차운했다.
>
> 새집이 우뚝 서 푸른 바다 굽어보니
> 한 장면의 경치 드넓게 눈에 들어오네
> 가고 오는 세상 일 모두 떨쳐버리고
> 띠끌 세상 시끄런 소리 이곳에 끼어들지 말라
>
> 이때 별진(別珍)공간의 우소(寓所)에서 자못 나를 조롱하는 말들이 있었다. 재미삼아 말을 만들어 헐뜯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중간에서 견강부회했기 때문이다. 들리는 말이 몹시 괴로워 말구에 언급하였다.
>
> 또 짧은 노래를 지었다.
>
> 세상이 나를 버리거늘 나도 세상을 버린 후에 강호의 임자가 되어 일없이 누었으니 아아 (…)[42]

차운한 시는 죽도에 집을 짓던 윤이후가 창작한 간(干)자 운의 시 중 한 수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시에 대한 설명이다. 별진의 우소에서 자신에 대한 조롱이 있었다고 했는데, 별진은 해남 별진역(別津驛)을 말하는 것으로 이곳은 조선 시대에 한양과 해남과 진도 지방을 연결하던 역으로 알려져 있으니,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윤이후에 대한 유언비어가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결구에서 "띠끌 세상 시끄런 소리 이곳에 끼어들지 말

功名이 쑴이론 듯 ᄒᆞ여라

42) 次前韻曰 新構超然俯碧湍/一區風物入平看/揭來世事都遺落/休遣塵喧到此干// 時別珍寓所頗有調我之言 蓋有喜造諂詆者 中間附會所致 而聞來甚苦 末句及之 又作短歌曰 世上이 ᄇᆞ리거ᄂᆞᆯ 나도 世上을 ᄇᆞ린 후에/江湖의 님자되야 일업시 누어시니/어즈버 ■■■■■■■■■■라

www.kci.go.kr

라"고 한 것은 그런 유언비어가 퍼지는 죽도 바깥의 공간과 죽도를 단절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것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다 풀지 못하였는지 시조 한 작품을 남긴 것이다. <일민가>의 여음과 같은 이 작품은 본인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언급하고, 그리하여 자신도 세상을 버렸으니 강호의 주인이 되어 누워 부귀공명을 좇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그저 강호 자연에 은거하고자 하는 선언 정도로 봐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윤이후는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왕의 평가를 예민하게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였다. 정쟁이 한창이던 그 시기에 정쟁을 회피하려는 모습도 보였고, 또한 대표적으로 이인엽이라는 인물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까, 그것에 대해 왕이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을 했던 인물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한없이 세상 일에 관심도, 걱정도 많았던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시국이 뒤집어지고 나서야 전에 이러쿵저러쿵했던 자들이 비로소 내 뜻에 감복했다. 하물며 나를 조롱한 자들은 유배형에 처해졌으니 생각건대 필시 나를 부러워해 마지않을 것이다. 아! 나는 진실로 어리석으므로 오늘날의 일에 대해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감개한 바가 있어서 구차하게 용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 43)

…그래서 굶주린 백성이 많아져 원성이 자자했다. 그러다 남인이 실각하게 되자 기뻐하며 축하하지 않는 백성이 없었다. 남인이 이처럼 인심을 잃었으니 어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다. …44)

인용한 두 부분 모두 1694년 일기로 모두 그 해 4월 1일에 일어난 갑술옥사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모두 남인들의 실권(失權)이 자초한 일이라며 남인에 대

43) 『지암일기』 1694년 6월 27일 두 번째 일기.
44) 『지암일기』 1694년 7월 10일 두 번째 일기.

www.kci.go.kr

한 비판적인 의견을 이야기하 있다. 애초에 남인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윤선도의 손자이며, 윤선도 손에 자란 윤이후의 입장에서, 남인의 실권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일기에 고스란히, 그것도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다. 일기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 이야기, 주관적인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기록이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이런 내용이 일기 곳곳에 보인다는 것은 윤이후가 세상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다고 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나 윤이후는 갑술옥사(甲戌獄事, 1694)로 인해 해남 인근으로 유배된 남인 계열의 여러 유력 인물들과 꾸준히 교류하였다. 별진과 병영에 배소를 두었던 권대운과 권규 부자, 제주도에서 영암으로 이배된 김덕원, 강진에서 연일로 이배된 류명천, 흑산도에 유배된 류명현 형재, 신지도에 유배된 목내선과 고금도에 유배된 이현기, 진도에 유배된 정유악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윤이후는 편지와 시문을 주고 받으며 먹거리를 포함한 생필품을 선물해주기도 했으며, 종종 유배지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이렇듯 일기 속의 일화들을 확인하면서 <일민가>를 살펴보면, <일민가>는 강호가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윤이후 자신이 겪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생긴 감정들을 풀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강호자연에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느낄 수 있는 자신의 속에 쌓인 시름들을 가사로서 풀어낸 것이 바로 <일민가>라 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해보자. 먼저 <일민가>는 <환산별곡>의 영향을 받아서 창작되었다. 이것은 기존 연구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긴 했으나 <일민가> 끝에 나오는 '소서'의 내용에만 집중하여 봤기 때문에 단편적인 언급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암일기』 내용을 살펴보면 <환산별곡>과 <일민가>

www.kci.go.kr

에 대한 언급이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일민가>의 창작 배경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일민가>는 애초에 윤이후의 외숙 이락이 부른 <환산별곡>과 수창을 하기 위해 창작되었으며, <환산별곡>에는 한자가 많고 시 전체 구절을 인용한 것이 아쉬웠으며, 이를 단점으로 여겨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마음에 품은 생각을 서술하며 흥을 깃들여 창작한 것이라고 하였다. 물론 <일민가>도 역시 <환산별곡> 못지 않게 한자어가 많으며 시 구절의 일부를 인용하기도 하고 여러 고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아 <환산별곡>의 단점을 완전하게 극복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환산별곡>이 도잠의 <귀거래사>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보여주며 17세기 가사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 <일민가>는 그것들이 조금씩은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다.

가령 <환산별곡>의 자연 공간은 속세와는 거리가 있는 탈속적인 공간이다. <일민가>의 자연경관도 역시 속세와는 거리가 있으나 그렇다고 완벽하게 속세와 단절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 윤이후는 <일민가>를 통해 죽도 생활 이전을 노래하면서는 관직을 그만두고 강호 자연을 즐기게 되었지만 그것은 결국 비록 일기에 기록된 사실과 다를지라도 타인의 모함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고, 죽도 생활을 노래한 후반부에서도 죽도 생활에 대한 만족을 보여주면서도 더 이상의 출사가 막힌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는 노래를 하였다. 속세에 대한 미련, 즉 임금에 대한 충성심, 연군 의식 등은 여전히 남아있으나 그것을 직접 표현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강호 자연에 남아 있어야 하는 자신에 대한 한탄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강호 자연은 결국 윤이후에게는 자의적, 타의적으로 고립의 공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일민가>가 수록된 『지암일기』의 여러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암행어사로 온 이인엽에 대한 기록이라던가 함평 대동미 유용 모함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낸 기록들뿐만 아니라 그가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인해 유배를 당했던 여러 남인들 지속적으로 교유를 했다는 것을 보면 그가 결코 현실 정치에서 벗어나고자 죽도에 살았던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www.kci.go.kr

일기의 여러 내용이 <일민가>에 투영됐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민가>는 자술성이 강한 가사라고 할 수 있겠다.

제목이 <일민가>라는 것은 '일민의 노래'라고 이해할 수 있으니, 이때의 '일민'은 윤이후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민'이라는 단어는 『논어』「미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논어』를 보면 '일민'을 깨끗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고, 저울질[權道]을 하여 의(義)에 맞게 하였으니, 방외(方外)의 선비가 의(義)를 해치고 가르침을 손상시켜 대륜(大倫)을 어지럽힌 것과는 등급이 다른 인물을 의미하는 것[45]이며 은둔하여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은[隱遯不汚] 인물이라 하였다. 결국 <일민가>라는 제목을 통해서도 자연에 은거한 자신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방외의 선비와는 다르며,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시류에 못 이겨 강호 자연에 은거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임을 생각해볼 수 있다. 결국 <일민가>는 <환산별곡>의 영향을 받아 17세기 강호 가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연군 의식이나 출사가 막힌 것에 대한 아쉬움 등을 자연 속에서 풀어내려는 자기 위로의 서사, 자술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45) 淸而不汚也 權而適宜也 與方外之士害義傷敎而亂大倫者 殊科 是以均謂之逸民

www.kci.go.kr

참고문헌

1. 자료

윤이후 저, 하영휘 외 역, 『지암일기』, 너머북스, 2020.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2. 논저

구수영, 「윤이후의 '일민가' 연구」, 『동악어문논집』 7, 동악어문학회, 1971.
김명준, 「<일민가>의 의식 지향과 시가사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18, 한국시가학회, 2005.
(UCI : G704-000454.2005..18.011)
박연호, 「장르론적 측면에서 본 17세기 강호가사의 추이」, 『어문논집』 45, 민족어문학회, 2002.
(UCI : G704-000917.2002.45..002)
박영민, 「『지암일기』를 통해 본 <일민가>의 창작 배경과 주제 의식」, 『한국고전연구』 4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안혜진, 「강호가사의 변모 과정 연구 - 누정계와 초당계 가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양희찬, 「<일민가>의 내적 짜기방법」, 『어문연구』 64, 어문연구학회, 2010.
(UCI : G704-000503.2010.64..010)
이동영, 「<환산별곡> 작자에 대하여 - 퇴계의 소작이 아니다」, 『가사문학논고』, 부산대출판부, 1987.
조연숙, 「<일민가> 연구 - 작가의식과 공간의식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22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UCI : G704-001062.2008..22.005)

www.kci.go.kr

| Abstract |

The Background and Consciousness of <Ilminga>
- Based on the contents of 『Jiam Diary』

Bae, Dae-ung
Chosun Univ. PH.D.Candidate

This article has contemplated <Ilminga> that is a lyrical work listed on the basis of the contents of 『Jiam Ilgi (Diary of Jiam)』, a diary of Jiam Yoon E-hoo (1636-1699). The study on <Ilminga> has its foundation of the macro-way of view of Gangho Gasa (songs to praise the nature while enjoying the life in rural area) in the 17th century to take a look at <Ilminga> and it was taken a look on the basis of 『Jiam Ilgi』 that displayed the life of its writer, Yoon E-hoo, but it has taken a look with the focus on certain part of <Ilminga> without the explan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tire contents and 『Jiam Ilgi』 which is something to be desired. Therefore, this article has contemplated what would be the intent of the writer to discuss about the contents of 『Jiam Ilgi』, the relationship with <Ilminga> and the subject to ultimately address through <Ilminga>.

First of all, <Ilminga> was creatively produced with the influence of <Hwansanbyeolgok> from Lee Rak who was an uncle of Yoon E-hoo. <Hwansanbyeolgok> was created with the influence of Dojam's <Gwigeoraesa> that it displayed the sense of

www.kci.go.kr

satisfaction his life in Gangho. It is true that the full context of <Hwansanbyeolgok> seems to be present, but <Ilminga> displays its expansion and advancement with the delivery of subjective characteristics or style of <Hwansanbyeolgok>.

In the meantime, <Ilminga> can be divided largely into three parts with the first part to depict the life in Okcheon, the second part to sing the life in Juk-do, and the concluding part to sing the blessing for the king. However, for each part thereof, it showed deviation in the emotion of speaker and this can b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life of Yoon E-hoo in his winding years has been integrated in <Ilminga>. Yoon E-hoo experiences political difficulties in his winding years for certain level, and because of such fact, he still had his grudges on his difficult times deep inside of his heart, and although he felt abundance of satisfaction while living in nature as a well-established member of local community, he ultimately winding down of his life while praying for blessings for the king in far distance away. It is difficult to bundle up the foregoing matters into a single tone, but if it is considered on the basis of the contents of Jiam Ilgi, it can be understand on why Yoon E-hoo displayed such a complicated emotion. Consequently, <Ilminga> is the work that displays the appearance of self-stated narrative with strong self statement that displays an aspect of Gangho Gasa while displaying the one's life at the final days simultaneously.

Key words : Yoon E-hoo, 『Jiam Ilgi』, <Ilminga>, Gangho Gasa, Self-stated narrative

투고일 : 2020년 7월 31일 **심사기간** : 8월 1일 - 8월 21일 **게재확정일** : 8월 22일

www.kci.go.kr